

#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의 전략적 변화\*

## -지역통합체 붕괴와 국경외주화의 교차점에서-

이정욱

(부산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글
2. 지역통합체 약화와 EU의 국경외주화 전략
  - 2.1. ECOWAS 자유이동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기능 약화
  - 2.2. AMU의 제도적 마비와 독립적 이주 정책
  - 2.3.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과 아프리카 국가의 이주 통제
3. 대체 경로의 탐색과 분석
  - 3.1. 이주 경로의 재설계와 전략
  - 3.2. 주요 대체 경로와 특징
4. 청년 이주자의 체류 환경과 생존 전략
  - 4.1. 경우 도시의 체류 환경
  - 4.2. 경우국 도시 체류 전략: 아가테즈, 가오, 스팍스 사례 분석
5. 나오는 글

### 국문초록

이 연구는 ECOWAS와 AMU의 자유이동제도의 약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국경외주화 전략이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분석한다. 사헬지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1003729)

역의 쿠데타와 지역통합체의 제도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거버넌스가 마비되는 한편, 유럽은 국경 폐쇄 및 추방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인의 유럽 접근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 이주자들은 새로운 이동 경로를 모색하거나 경유지에서 장기 체류·정착하며 생애 전략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조직,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 공유, 비공식 생존 전략이 활성화되며, 전통적 환승지였던 경유 도시는 전략적 체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도 청년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을 조명하며, 도착지 중심의 분석을 넘어 경유지에서 재편되는 생애 전략과 주체성의 역동성을 밝힌다.

**[주제어]** 청년 이주, 자유이동제도, ECOWAS, AMU, 국경외주화, 생존 전략, 경유 도시, 이동 경로

## 1. 들어가는 글

2024년 기준 아프리카인 디아스포라는 약 4,575만 명에 달한다. 유럽 대륙에 약 1,028만 명, 아시아 670만 명, 북아메리카 273만 명, 오세아니아에 63명 등 거의 모든 대륙에 아프리카 이주민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로 이주한 수는 전체 이주자의 50%가 넘는다. 약 2,505만 명으로 추산한다(아프리카워클리, 2025).

African Youth Survey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16개국 청년층의 58%가 향후 3년 이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다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IFF, 2024). 이들이 원하는 주요 목적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등 OECD 국가들, 즉 다양한 의미에서의 선진 국가들이다(PADO, 2025).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은 아프리카인이 가장 선호하고 또한 많이 이주해 있는 대륙이다.

아프리카 청년세대가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주된 배경은 단순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기후 요인만이 아니다. 일자리 부족,<sup>1)</sup> 열악한 사회 기반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1,500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공식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300만 개에 불과해 청년층의 이주 압력이 매우 높다

시설, 제한된 교육 기회,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대한 동경과 같은 사회구조적이고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오늘날 아프리카 청년세대에게 이주는 단순한 탈출이 아닌 삶의 조건을 재편하고자 하는 장기적 전략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전까지 활발하던 아프리카인의 이주 흐름은 전환기를 맞는다. 이주자들의 수는 감소하였고, 이주자들의 이동 경로 역시 변화하였다. 이러한 이주 흐름의 변화 배경에는 ECOWAS와 AMU가 추진해 온 지역공동체 이주 거버넌스의 기능적 해체와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주 차단과 국경 통제가 있다. 지역 차원의 이주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경 관리가 강화되자, 청년 이주자들은 기존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우회하는 루트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화된 통제와 감시로 전통적인 경로인 중부 지중해 루트가 사실상 차단되자 이주자들은 결국 대서양 루트와 같은 새로운 경로 즉, 여정은 멀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우회 경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주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이주 양상이 나타났다. 원래는 단순한 환승지에 불과했던 경유 도시가 이동 경로가 막히자, 장기 체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주자들은 생존과 재이동을 위해 경유 도시에서 자율적 공동체를 꾸리고 노동시장에도 참여했다. 그 결과 경유 도시는 단순한 통과지가 아니라, 삶을 다시 구성하는 실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COWAS와 AMU의 자유이동제도가 약화되고 EU의 국경 외주화 전략이 강화되는 과정이 서아프리카 청년세대의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서양 횡단 경로를 비롯해 이주자들이 새롭게 모색하고 선택한 대체 이동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가데즈(Agadez), 가오(Gao), 스팍스(Sfax)의 사례를 통해, 이동이 차단되고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청년 이주자들

(PADO, 2025). 또한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15~35세 사이의 청소년이 약 4억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실업 상태에 있다(Al Jazeera, 2024b).

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 체류 과정에서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지역통합체 약화와 EU의 국경외주화 전략

### 2.1. ECOWAS 자유이동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기능 약화

#### 2.1.1. ECOWAS와 자유이동제도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15개국이 중심이 되어 1975년 출범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지역통합체이다. 「라고스 조약(Treaty of Lagos)」에 따라 1975년 15개국을 회원으로 완전한 경제 및 무역 연합의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1979년 제정된 「자유이동에 관한 프로토콜(Free Movement Protocol, Protocol A/P.1/5/79)」은 아프리카 최초로 지역 내 인적 이동의 자유를 권리의 형태로 명문화한 협정이다(Duruji, Moses M, 2025).

프로토콜 시행 첫해인 1979년 1단계에서는 회원국 국민에게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1986년 제2단계에서는 체류권 보장, 1990년의 제3단계에서는 정착권 인정과 취업권 등 높은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원국 국민의 이동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Hirsch, Alan, 2018). 자유이동 프로토콜은 회원국 간 국경 통과를 허용하고 무비자 입국과 체류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합의되었고 보건이나 교육, 노동 등 회원국의 기본적인 차원의 공공서비스 접근도 보장하는 규범도 함께 제시되었다.

ECOWAS의 자유이동 프로토콜은 서아프리카 이주의 84%가 ECOWAS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질 만큼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했다(IOM, 2018). ECOWAS의 자유이동제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이주를 통

해 삶을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계획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 2.1.2.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과 실효성 약화

자유이동제도는 설계 초기부터 내재한 구조적 불균형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점차 현실적으로 제도의 실행력이 약해져 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회원국 간 정치 체제의 이질성과 제도화 수준의 차이였다. 세네갈과 가나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자유이동 프로토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던 반면, 말리나 니제르, 기니 같은 군사정권 또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지역통합체 차원의 자유이동 제도를 시행하기 쉽지 않았다(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2007).

안보에 대한 국가 간의 인식의 차이와 국경 관리에 대한 역량 차이도 자유이동 프로토콜을 시행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었다. ISGS나 보코하람 등 무장세력들의 확산<sup>2)</sup>으로 치안 불안이 끊임없이 지속되던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타 국적의 이주자들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이들 나라는 이주민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것보다 국경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ECOWAS의 자유이동 프로토콜은 지역통합체 차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낼 수밖에 없었다.

### 2.1.3. AES 출범과 ECOWAS의 기능적 약화

사헬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일련의 쿠데타는 지역통합체의 구조적 붕괴 위기를 결정적으로 가져왔다. 2020년대 초 말리(2020, 2021), 부르키나파소(2022), 기니(2021), 니제르(2023)에서 군사 쿠데타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결국 세 국가는 2024년 7월 '사헬국가연합(AES, Alliance des États du Sahel)'을 창설하였고, 이듬해 1월 29일 이들 세 국가는

2) 나이지리아에서 10년 동안 지속된 보코하람 반란은 차드호 분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치안 불안과 난민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점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의 피해 지역에서 29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이 중 72%(210만 명 이상)가 나이지리아에 거주한다(Duruji, Moses M., op.cit.).

공식적으로 ECOWAS를 탈퇴하면서 ECOWAS의 이주 거버넌스는 사실상 해체되었다(Ewokor, Chris, 2025).

## 2.2. AMU의 제도적 마비와 독립적 이주 정책

AMU(Arab Maghreb Union, 아랍마그레브연합)는 1989년 2월 17일 마라케시에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의 5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한 북아프리카 지역협력체이다. ECOWAS처럼 회원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 시장 창설, 경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협정문(Traité instituant l'Union du Maghreb Arabe) 제2조에는 “회원국 간 인적 자원, 서비스,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점진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 L'Union vise à oeuvrer progressivement à réaliser la libre circulation des personnes, des services, des marchandises et des capitaux.”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AMU는 출범 이후 회원국 간 한 차례의 정상회의도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통합체 존립 자체에 위기를 초래했다. AMU의 제도적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는 서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인한 모로코와 알제리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며, 두 번째는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리비아의 이탈이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중립적인 독자 외교 노선을 선택한 모리타니의 외교적 고립이다.

AMU는 설립 초기부터 회원국 간 정치적 불신과 갈등으로 북아프리카 국가의 공동이주 거버넌스를 구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당연히 상호 간의 기본적인 협력체계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결국은 각 회원국의 이주 정책은 공동체 차원의 조율이나 협력 없이 각기 자율적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었다.

3) <https://url.kr/6duzax>(검색일: 2025.09.18.).

### 2.3.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과 아프리카 국가의 이주 통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주와 이동 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난 20년간 유럽이 추진해 온 국경외주화(externalisation des frontières) 전략과 같은 외부적 개입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결과라 이해해도 무방하다.

유럽의 국경외주화란 유럽연합 또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외부 국경 관리를 제3국에게 위탁하거나 협력을 통해 유럽 국경 내부로의 이주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적인 정책이다. 비합법적인 이주자나 난민이 유럽에 도달하기 전, 아프리카 영토 내에서 이주자의 이동을 억제하거나 이주 신청 절차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주 통제의 아웃소싱 전략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유럽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에서 통제하는 전략을 시행해 왔다. EU는 2004년 발표한 '이주 및 이동성에 대한 글로벌 접근(GAMM,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유럽 국가의 포괄적인 이주 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공식화한 이후 'EU-아프리카 이주 파트너십(EU-Africa Migration Partnership, 2007)', '아프리카를 위한 EU 신탁기금(EU Trust Fund for Africa, 2015)', '이동성 파트너십(Mobility Partnerships, 2008)', '라바트 프로세스(Rabat Process, 2006)' 및 '카르툼 프로세스(Khartoum Process, 2014)' 등 다양한 협정 체계를 통해 이민과 난민 전략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된 'EU Emergency Trust Fund for Africa(EUTF)'는 외주화 전략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 협정으로 유럽은 튀니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비공식 이주 통제 협력을 본격화했다(European Commission, 2020). EU는 국경 및 해안 레이더 감시 장비 제공과 통신 시스템 제공,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지원과 함께 막대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니제르와

4) [https://en.wikipedia.org/wiki/Externalization\\_\(migration\)](https://en.wikipedia.org/wiki/Externalization_(migration))(검색일: 2025.06.15.).

EU 간의 협력에 따른 ‘2015년 이주 차단법(「Loi n°2015-36」)<sup>5)</sup>이다. EU는 수천만 유로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니제르에 제공했고, 니제르 정부는 ECOWAS의 자유이동 프로토콜 이행보다 EU의 요구를 우선시하게 되었다.<sup>6)</sup> 이후 니제르에서는 이주자 운송과 브로커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어겼을 시 범죄 행위로 처벌되었다.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튀니지는 2023년 EU와 약 10억 유로 규모의 이주 협력(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 strategic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unisia)을 체결하며 자국 내 서아프리카 이주자에 대한 단속과 송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AMU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이주 프로토콜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였으며, 각국의 이주 정책이 점차 개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EU는 ECOWAS 또는 AMU와 같은 지역통합체 전체와 연대하여 협력하기보다는 회원국 개별 국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전략도 구사하였다. 예컨대 EU는 AMU 전체와는 협력하지 않으면서 모로코(2022)와 튀니지(2023)와는 각기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ECOWAS의 경우 회원국 전체보다는 니제르<sup>7)</sup>처럼 개별 회원국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주자의 송환이나 이주 통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EU의 전략은 지역통합체 국가간 협력을 방해하면서 각국의 독자적 통제를

5) 「Loi n° 2015-36」은 니제르에서 2015년 5월 26일에 제정된 법이다. 공식 명칭은 「Loi n° 2015-36 du 26 mai 2015 relative au trafic illicite de migrant」이다. 이 법은 EU의 압력과 동시에 지원 약속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며, 목적은 니제르를 통해 북상하는 이주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가데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밀입국 이주자들의 이동을 범죄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주자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Stille, Sophia, 2023).

6) EU가 니제르와의 협력에 따라 실제 지원한 금액은 2015~2022년까지 19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6억 8,700만 유로에 이른다. 이 금액의 상당수는 국경 통제와 법 집행에 집중되었다. 또한 2014년~2020년 사이 EU의 전체 개발협력 지원액은 니제르에 10억 유로를 넘었고, 그 중 이주 통제, 불법 이주 근절이 핵심 목표였다(Brot für die Welt, 2023).

7) EU와 니제르 간의 국경외주화 협정은 2015년 발레타 정상회의의 결과로 니제르가 반이주법(「Loi n° 2015-36 du 26 mai 2015 relative au trafic illicite de migrants」)을 제정하면서 개시되었다(ECHOES TEAM, 2024). 그러나 2023년 11월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에 제정된 반이주법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자들의 이동이 다시 증가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대부분의 AMU 회원국은 국경 통제 등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Martini, Lerena Stella, 2023).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법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튀니지와 리비아의 해안에서의 이주 사전 차단 효과로, 가장 인기 있는 이주 경로인 중부 지중해 경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아프리카 이주자의 비율이 약 70% 감소했다(Williams, Wendy, 2025).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은 개별 국가의 이주 통제로 이어졌고, 결국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경유국의 이주 정책에 맞춰 자신들의 이주 전략을 다시 설계하거나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 3. 대체 경로의 탐색과 분석

#### 3.1. 이주 경로의 재설계와 전략

ECOWAS 자유이동제도의 무력화와 AMU의 기능 정지 그리고 EU와 북아프리카 국가 간의 국경외주화 협정은 기존의 전통적 경로, 예컨대 중부 지중해 루트의 이용이 크게 움츠러들었다. 과거 말리-알제리-리비아-이탈리아로 이어지는 리비아 경로는 사하라 이남 청년 이주자들에게 가장 직선적이고 일반적인 이동 루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리비아 내전의 장기화, 해안경비대의 차단과 억류, 학대와 추방 등 위험이 심화하면서 이 경로는 극도로 위험한 선택지가 되었다(IOM, 2021).

이에 많은 청년 이주자는 중부 지중해 루트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튀니지의 해안 도시 스팍스와 수스(Sousse)가 리비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출발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2023년 튀니지 대통령의 인종 혐오 발언, 튀니지-EU 이주 협정 체결, 그리고 같은 해 7월 스팍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사하라 이남 출신 흑인 이주자들을 향한 인종화된 폭력과 강제 추방이 이어지자, 이주자들은 다시금 다른 이동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주자들이 새롭게 모색한 대표적인 대체 경로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국가들을 거쳐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에 도달하는 해상 루트이다. 이 경로는 이동 거리가 훨씬 길고 해상 조건도 위험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이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가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MMC Q1, 2025).

### 3.2. 주요 대체 경로와 특징

이 절에서는 청년 이주자들이 전통적인 중부 지중해 루트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대체 경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중부 지중해 루트 역시 여전히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경로임은 분명하다.

#### ① 서아프리카 내륙-해안 연계 이주 경로

• 경로: 말리 남부(Sikasso, Koutiala, Bougouni 등) → 부르키나파소 남부(Bobo-Dioulasso → Tenkodogo 등) → 가나 북부(Tamale) → 가나 남부 해안 도시(Accra, Tema, Kumasi 등)로 이어지는 경로

• 특징: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 경로는 Accra 등 비교적 부유한 가나 내 해안 도시가 최종 목적지가 되거나 유럽행 이주자들은 이 도시들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자금이나 정보를 축적하는 시간을 갖는다.

#### ② 대서양 연안 경로

• 경로: 니제르(Maradi) → 나이지리아 북부(Kano) → 나이지리아 남부(Benin City) → 베냉(Cotonou) → 토고(Lomé) → 코트디부아르(Abidjan) → 세네갈(Dakar) → 모리타니(Nouakchott)로 이어지는 서해안 종단 경로

• 특징: 이 경로는 서부 연안국 해안 축을 따라 이어지는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의 다단계 경로이다. 2021-2023년 사이 이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이주자들이 급증했는데, 위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리비아-지중해 루트보다 감시와 단속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8)</sup> 이 경로는 노동

시장 접근, 재이주 경로 확보 또는 유럽행 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얽혀 있다.

### ③ 대서양 횡단 경로

- 경로: 세네갈(Dakar, Saint-Louis) → 모리타니(Nouakchott) → 서사하라 →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Lanzarote, Tenerife 등)

- 특징: 이 루트는 리비아 및 지중해 루트의 차단 이후 대체 경로로 급부상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39,910명 이상이 610척의 보트로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였다. 15,682명이 도착한 전년도 이주자 대비 155%가 증가했다(IOM, 2023).

대서양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 중 하나이다. 이 경로의 거리는 약 800-1,500km로서 항로가 길고 해류가 거세다. 따라서 조난 시 구조가 어려워 위험성과 사망률이 높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4,000명 이상의 이주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는 이 항로를 이용한 이주자 중 약 36,000명의 아프리카인이 체포되었다(Williams, Wendy, op.cit.). 이처럼 위험한 루트임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횡단 경로는 지중해를 대신하여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불법 통로가 되었다.

## 4. 청년 이주자의 체류 환경과 생존 전략

청년 이주자의 경유 도시 체류는 전략적이다. 이들에게 자의든 타의든 장기 체류는 자원을 축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생존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유지에서의 장기 체류가

---

8) 2017년과 2019년 사이 중부 지중해 루트와 서부 지중해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주민의 수는 감소했고, 2018년부터 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대거 이주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지중해 루트를 통한 유럽 입국자는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로 건너가는 이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16,760명이 도착했다.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Migration data portal, 2025).

이주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국은 최종 정착지로 전환될 수도 있다.

#### 4.1. 경유 도시의 체류 환경

ECOWAS의 자유이동제도가 사실상 기능적으로 해체되고 AMU의 이주제도가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주자들의 이동과 이주 환경이 단순히 이동 경로가 통제되고 차단되는 것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당하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더구나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까지 적용되면서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동과 이주 환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와 주거, 경제활동,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까지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주자의 법적 지위 소멸이다. ECOWAS 시민권 개념은 과거 국경 통과와 단기 체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ECOWAS의 지역통합체 기능이 와해한 이후, 체류자 등록이나 신분 증명, 취업 허가과 같은 프로토콜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이주자들은 경유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혹은 무국적자의 상태로 머물러야 하며, 이는 곧 경유국 내에서 공식적인 거주지 확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이주자는 체류 도시 외곽의 버려진 건물이나 재래시장의 임시 구조물 등 불안정한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고 더불어 위생이나 치안, 보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마저 혜택받기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환경 속에서 이주자들은 주거지 철거와 추방, 현지 주민이나 경찰에 의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MMC Q1 2025, op.cit.).

또한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접근도 불가능하다. 결국 막다른 상황에 이른 이주자들을 저임금과 고위험의 비공식 단기 노동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대개 농업이나 어업, 운송, 일일 건설 노동 등이다. 한편 브로커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얻은 이주자들은 임금 체불이나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 착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거나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성 이주자 역시 가사 노동과

같은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예가 많으며, 가끔 성폭력 및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Chloe, Sydney, 2025).

## 4.2. 경유국 도시 체류 전략: 아가데즈, 가오, 스팍스 사례 분석

경유국 도시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대기가 아닌 자원 축적과 정보 교환, 정체성 재정립, 공동체 구축의 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이주자들에게 나타나는 장기 체류를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니제르의 아가데즈, 말리의 가오, 튀니지의 스팍스는 이러한 변화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경유 도시의 사례이다.

### 4.2.1. 아가데즈: 폐쇄된 북상 경로에서 '전략적 체류지'로의 전환

니제르 아가데즈는 사하라 사막을 넘어 리비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이주 경로의 중심지였으나 현재 사막 횡단 이주가 단속되고 경유가 차단되면서 이주자들이 장기 체류하게 된 대표적 도시이다. 2015년 「Loi n°2015-36」 제정 이후 북상을 시도하는 이주자의 이동이 범죄화되면서(Dauchy, Alizée, 2020) 경유 도시 아가데즈는 장기 체류지로 성격이 바뀌었다.<sup>9)</sup> 이주자들은 도시 외곽 지역(Sabon Gari 등)에 비공식 정착지를 형성하고 일용직 노동, 오토바이 운송 등에 종사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자분을 모으면서 재이동을 희망한다.

디지털 활용 기술에 능한 청년세대 이주자들은 WhatsApp, Facebook, Telegram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나 검문소 위치, 국경 단속 여부, 고용 기회, NGO 활동 정보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주 전략을 설계한다. 아가데즈는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된 이주자들의 정보 공유 공동체가 활성화된 공간이며 물리적 경계와 감시 체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다음 경로로의 재이동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활

9) 2023년 7월 쿠데타 이후 니제르의 새로운 군사정부인 '국토수호국가위원회(Le Conseil national pour la sauvegarde de la patrie(CNSP))'는 이 법을 폐지하였다 (Al Jazeera, 2024a).

용되고 있다.

#### 4.2.2. 가오: '회색 공간'에서의 순환 노동과 체류

말리 북부에 위치한 가오는 역사적으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 도시는 사헬지역을 횡단하여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이주 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지역통합체인 ECOWAS가 말리에 가한 제재의 여파로 다른 경유 도시로의 이동이 차단되면서 이주자들이 가오에서 장기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가오 역시 아가데즈처럼 이주자들이 이동과 정주 사이에서 새로운 생애 전략을 모색하고 조정해 나가는 도시로 변화되었다.

가오는 일종의 '회색 공간'이다. 회색 공간이란 유엔난민기구(UNHCR)나 국제이주기구(IOM) 같은 공식적인 국제기구들이 상주하거나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즉, 가오는 국제기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도시이다. 그래서 공동체 네트워크, 특히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이주민의 거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10)</sup> 대부분 이주자는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에 속해 있다. 공동체 커뮤니티의 도움이 없다면 체류와 생존을 위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오에 장기 체류하는 청년 이주자들은 주로 니제르(28%), 부르키나 파소(35%), 세네갈(18%)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IMREF, 2021). 이들은 주로 프랑스어와 하우사어를 사용하며, 무리디야(Murīdiyyah), 티자니아(Tijaniyya)와 같은 종교적 네트워크와 출신 지역 중심의 동족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여 유지한다. 이러한 공동체 네트워크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거주지나 이주민 캠프 내에서 주거 공간을 배치하고 생계, 일자리 알선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위협에 대항하여 보안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등 공동체 생활에 기본적이며 필수

10) 일반적으로 종교적 네트워크는 경유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이주 네트워크의 기능을 한다. 종교 공동체는 이주자들에게 종교적 연대와 생존 기반을 제공한다. 이주자들은 이러한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숙소, 일자리, 이동 경로 정보 등을 공유받는다. 그 예로 무리드 형제회(The Mouride Brotherhood)가 있다.

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가오의 청년 이주자들 역시 주로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건설 노동, 오토바이 운전, 하역 작업, 시장에서의 판매 활동 등 소액 자본 기반의 장사를 하거나 일부는 브로커나 밀수조직에 가담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주자들이 도시 내부에만 한정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기에는 도시를 떠나 근교인 와바리아(Wabaria)지역에서, 먼 거리일 경우에는 가오에서 100km 떨어진 니제르강 유역의 안송고(Ansongo)나, 부렘(Bourem)까지 이동하여 농사일이나 수확을 돕는 단기 계절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건기에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자신들의 공동체와 합류하는 순환 이주를 한다. 가오의 이주자들은 생존 또는 재이동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대개 이런 순환 노동을 매년 반복한다(IOM, 2024).

가오의 이주자들은 장기화된 체류 속에서도 재이동을 위한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청년세대들에게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이들은 다음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 중 위험 요소나 국경 통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생애 경로를 유동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해 나간다.

이처럼 가오는 단순한 경유지를 넘어 이주자 공동체가 생존과 정체성, 문화적 실천<sup>11)</sup>을 동시에 실현하는 실천 공간이자 순환적 이동과 지역 내 정주성이 공존하는 전략적 거점 도시로 이해할 수 있다.

#### 4.2.3. 스팍스: 유럽행 출발지에서 '방어적 체류지'로

튀니지 항구도시 스팍스는 이탈리아 람페두사섬까지 약 130km 거리로 가장 짧은 유럽행 해상 경로 중 하나이다. 스팍스는 리비아의 이주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2022-2023년을 기점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사하라 이남 이주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든 이주자의

11) 거주지 공동체 내에는 전통적인 종교 실천뿐 아니라 외부 이슬람 단체의 지원을 받은 청년 교육 모임, 문화 공연, 디지털 미디어 활용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한다는 의미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종교가 융합된 복합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IMREF, 2021, op.cit.). IMREF 보고서는 가오의 현지인 지역 커뮤니티와 이주자 커뮤니티 간 상호작용, 공동체 구성, 문화적 교류 등을 분석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주요 집결지이자 출발지로 주목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에 도착한 해상 이주자 중 97,306명(약 62%)이 튀니지의 해안 도시에서 출발했다. 리비아에서 출발한 이주자는 52,034명(약 33%)이었다(MMC Q4, 2023).

스팍스에 도착한 이주민들 역시 아가데즈나 가오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중해를 건너는 정보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하며 체류 전략을 모색한다. 공식 일자리는 거의 없고 단순노동의 일용직이 주요 생계 수단이다.

그러나 2023년 7월 스팍스에서 발생했던 초유의 대규모 폭력 사태는 이 도시에서 거주하며 유럽행을 준비하는 이주민들의 일상과 이주 전략을 급작스럽게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팍스에 체류하던 거의 모든 이주자가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되었다.

한 튀니지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폭력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급증하는 이주민에 대한 현지인의 불만과 자원 경쟁이다. 그리고 실업률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이주민에게 전가된 것도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스팍스 사태의 단초는 바로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인 2월 21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의 사하라 이남 이민자에 대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튀니지로 불법 입국하는 것은 튀니지의 인구 구성을 바꾸려는 목적의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CNN World, 2023).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튀니지 내 사하라 이남 출신의 흑인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더욱 확산하였다.

2023년 7월 3일, 스팍스에서 튀니지 청년이 흑인 이주자들과의 난투 끝에 사망하자, 그동안 쌓여온 긴장과 분노가 일시적으로 폭발하며 현지 주민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주자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다. 튀니지 정부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면서 이민자를

12) 2024년도 아프리카 청년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청소년의 대다수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이 자신들의 자원을 빼앗고, 지역 범죄를 증가시키며,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의 청소년 중 상당수(59%)는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에서 강제로 추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IFF, 2024:101).

검거하여 임시 캠프에 수용하거나 추방하였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이주자가 리비아와 알제리 국경을 접한 사막 지역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France24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약 2,000명이 리비아와 국경을 접한 사막 지역으로 추방되었고, 이중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73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France24, 2023).

스팍스 사건 이후로 스팍스 청년 이주자들의 체류 전략에는 많은 변화가 왔다. 도심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거나 추방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이주자들은 도심의 깊숙한 곳에 숨어들거나 외곽지역의 올리브 숲으로 숨어들었다. 새로 형성된 집단 거주지에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존 체계가 만들어졌다.<sup>13)</sup> 현지 주민이나 보안 당국의 인종차별적 폭력과 체포 및 구금, 강제 추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방어 조직을 공동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식수, 의료 등 기본적 생존 자원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다.<sup>14)</sup>

스팍스뿐만 아니라 튀니지의 해안 도시들에 머물던 수많은 이주자는 지중해 횡단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였고, 일부는 새로운 대안 경로를 찾아 떠났다. 이주자들은 우회 루트나 대체 경유지로 발길을 돌렸다. 중부 지중해 루트 대신 대서양 루트로 향하거나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가는 동지중해 루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아가데즈, 가오, 스팍스 세 도시의 사례는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아프리카 청년 이주자들이 주체적인 전략을 통해 노동 활동 등 체류하는 도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공동체 기반의 실천을 통해 생존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이주 경로

13) 스팍스 인근의 엘 암라와 제베니아나 지역에는 17개의 이민자 임시 캠프가 만들어졌다. 그중 가장 작은 캠프는 700명, 가장 큰 캠프는 수천 명을 수용하였다(Info Migrants, 2024).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5년 초 당시 약 2만 명의 이주민이 있었다고 전한다(Reuters, 2025). 그러나 2025년 4월 튀니지 당국은 '공중보건과 치안 확보(health and safety)'를 이유로 엘 암라(사프앤드 지역)의 이주민 임시 캠프를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철거하였다. 캠프는 기계 장비로 완전히 철거되고 불태워졌다. 이주자들은 스팍스 남서부의 정부 소유 부지인 비르 멜룰리(Bir Mellouli)로 이송되었고 일부는 알제리 또는 리비아의 국경 지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우려, 강제 추방 등과 관련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Le Monde, 2025).

14) <https://url.kr/bcxnel>(검색일: 2025.09.18.).

상의 환승지로만 여겨지던 경유지가 이주자들에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전략적인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5. 나오는 글

이 연구에서 지역통합체의 이주 거버넌스 변화 그리고 EU의 국경외 주화 전략이 어떻게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자의 이동 경로와 체류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동과 이주가 통제되고 위협받는 환경의 변화는 청년세대의 이주 전략 전환이나 재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 환경의 변화는 청년 이주자들을 단순히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유 도시에서의 체류를 새로운 생존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통제되고 차단된 이주 경로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이주자들은 대부분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체성과 연대를 유지한다. 그리고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생존과 재이동을 준비하면서 체류한다.

오늘날의 아프리카 청년세대는 디지털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이동 경로 탐색, 브로커 접촉, 단속 정보, 노동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집단적 지식 기반을 축적하면서 이동 전략과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가데즈, 가오, 스팍스와 같은 도시는 더 이상 경유 도시, 환승 도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유 도시들은 이제 이주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과 일상을 영위하며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생애 전략의 구체적 실천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도시 공간 안에서 실천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과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상징

질서를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말리의 가오 같은 도시들은 결과적으로 다문화적 풍경과 종교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적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러 도시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경유국 사회 내부에서도 문화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자 공동체가 형성하는 문화적 공간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도시 문화를 재창조하는 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자의 문화적 실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주 통제와 감시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접근을 넘어, 도시 공간 내 이주자의 권리 보장과 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스팍스의 예처럼 제도 밖 불안정성과 배제 그리고 폭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ECOWAS나 AMU와 같은 지역 기구는 더 이상 형식상의 기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주자가 실질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들의 이주 거버넌스와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조명한 서아프리카 청년세대의 이주를 단순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의 전략적 재설정과 지식 실천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경유 도시를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체류 도시 공간 안에 재생산 해나가며, 그들의 정주성과 주체성이 끊임없이 실험되고 발현되는 역동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자들이 경유 도시에서의 삶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을 실패한 인생의 낙오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청년세대의 이주 현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인식은 이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Duruji, Moses M.(2025). “ECOWAS의 자유 이동 의정서와 서아프리카의 이주노동 위기”, *EMERiCs. KIEF*, <https://buly.kr/E79ynRm>(검색일: 2025.07.25.).
- Ewokor, Chris(2025). “Three military-run states leave West African bloc-what will change?”,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5yvd91j72eo>(검색일: 2025.06.21.).
- Hirsch, Alan(2018). “A plan for the free movement of Africans across the continent is being held up by fears of xenophobia”, *Quartz*, <https://buly.kr/3YEVwbB>(검색일: 2025.09.17.).
- Martini, Lerena Stella(2023). “Road to nowhere: Why Europe’s border externalisation is a dead end”,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ECFR)*, <https://buly.kr/Cskfvrw>(검색일: 2025.05.08.).
- Stille, Sophia(2023). “The criminalization of mobility in Niger: The case of Law 2015-36”, *Asile*, <https://buly.kr/AaqpBHz>(검색일: 2025.06.18.).
- Sydney, Chloe(2025).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in Mixed Migration”, *MMC*, <https://buly.kr/GE94ZPr>(검색일: 2025.09.20.).
- Williams, Wendy(2025). “Tendances migratoires à surveiller en Afrique en 2025”, *Centre D’Etudes stratégique de l’Afrique*, <https://buly.kr/1vMKNR>(검색일: 2025.06.18.).
- 한·아프리카재단(2025). “아프리카로의 외화 흐름과 투자: 디아스포라의 눈부신 활약”, <아프리카워클리>, 20호, <https://buly.kr/Cq7JDw>(검색일: 2025.09.12.).
- Al Jazeera(2024a). “‘Agadez has begun to live again’ Migrants and smugglers are returning after Niger repealed its anti-migration law”, <https://buly.kr/AF1JDjx>(검색일: 2025.09.12.).
- Al Jazeera(2024b). “Corruption pushing African youth to emigrate: Poll”, <https://buly.kr/9tBnG83>(검색일: 2025.08.23.).
- Reuters(2025). “Tunisia dismantles sub-Saharan migrant camps and forcibly deports some”, <https://buly.kr/4QoIqrH>(검색일: 2025.08.23.).
- AP(2025). “Tunisia dismantles encampments housing migrants stranded en route to Europe”, <https://buly.kr/7bHwVYI>(검색일: 2025.09.14.).
- Brot für die Welt(2023). “Niger The Gate to the Sahel”, <https://buly.kr/7x7STD4>(검색일: 2025.08.14.).
- CNN World(2023).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repatriating citizens from Tunisia after ‘shocking’ statements from country’s president”,

- <https://buly.kr/7FSQXxq>(검색일: 2025.08.14.).
- ECHOES TEAM(2024). “Repeal of the “anti-migration” law 2015-036 in Niger!”, *Civil MRCC*, <https://buly.kr/YfdGyf>(검색일: 2025.08.14.).
- European Commission(2020). “EU Trust Fund for Afric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Final Report*, <https://buly.kr/2qZU1bn>(검색일: 2025.09.11.).
- France24(2023). “Tunisia expels hundreds of sub-Saharan African migrants from Sfax amid crackdown”, <https://buly.kr/GE94Zhm>(검색일: 2025.08.14.).
- Human Rights Watch(2019). “Libya: Nightmarish detention for migrants, Asylum seekers”, <https://buly.kr/4FtXsFK>(검색일: 2025.09.12.).
- Human Rights Watch(2023). “Tunisie: La violence raciste cible les migrants et réfugiés noirs”, <https://buly.kr/8emUOef>(검색일: 2025.09.12.).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2007). “Operationalizing ECOWAS Protocol”, <https://buly.kr/8phFNYK>(검색일: 2025.10.11.).
- IMREF(2021).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transit migrants in Gao and Agadez”, <https://buly.kr/90c0MOx>(검색일: 2025.09.12.).
- Info Migrants(2024). “Thousands of sub-Saharan migrants in Sfax dream about Europe”, <https://buly.kr/YfdHGE>(검색일: 2025.08.03.).
- IOM(2018). “Intra-ECOWAS migration: 84 per cent of migration movements in West African countries are towards another country in the region”, *Guidelines for the Harmonization Data in ECOWAS*, <https://buly.kr/DaPhrlk>(검색일: 2025.08.03.).
- IOM(2021). “Smuggling of Migrants on the Central Mediterranean Route”, <https://buly.kr/G3EJbD7>(검색일: 2025.08.03.).
- \_\_\_\_\_(2023). “Irregular Migration routes to Europe: West and Central Africa”, <https://buly.kr/8lwyRL2>(검색일: 2025.08.04.).
- \_\_\_\_\_(2024). “Suivi des flux migatoires: Rapport trimestriel octobre-décembre 2024”, <https://buly.kr/BTQc643>(검색일: 2025.08.03.).
- Le Monde(2025). “In Tunisia, authorities dismantle migrant camps in Sfax: They took everything down, then burned it all”, <https://buly.kr/GktLWYG>(검색일: 2025.09.11.).
- Migration data portal(2024). “Migration data in data in Western Africa”, <https://buly.kr/1xzh82H>(검색일: 2025.09.12.).

- MMC(2023). “Quarterly Mixed Migration Update: North Africa”, Q4, <https://buly.kr/ESzUlyN>(검색일: 2025.09.13.).
- \_\_\_\_\_(2025). “Quarterly Mixed Migration Update: West Africa”, Q1, <https://buly.kr/6tcuav4>(검색일: 2025.09.13.).
- PADO(2025). “아프리카 이민이 세계를 바꾼다”, <https://www.pado.kr/article/20250912288834071>(검색일: 2025.08.19.).
- Reuters(2025). “Tunisia dismantles sub-Saharan migrant camps and forcibly deports some”, <https://buly.kr/4QoIqrH>(검색일: 2025.08.19.).
- [https://en.wikipedia.org/wiki/Externalization\\_\(migration\)](https://en.wikipedia.org/wiki/Externalization_(migration))(검색일: 2025.06.15.).
-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546/volume-1546-I-26844-English.pdf>(검색일: 2025.07.22.).
- <https://externalizingasylum.info/moving-beyond-externalisation-toward-law-ful-cooperation-on-asylum/>(검색일: 2025.09.25.).
- <https://www.france24.com/en/africa/20230917-tunisia-expels-hundreds-of-sub-saharan-african-migrants-amid-crackdown>(검색일: 2025.09.22.).
- <https://url.kr/6duzax>(검색일: 2025.09.18.).
- <https://url.kr/bcxnel>(검색일: 2025.09.18.).

## 필자 소개

성 명 이정옥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주 소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지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자우편 leedolce@hanmail.net

## | Abstract

# Strategic Shifts in Youth Migration in West Africa - At the Crossroads of Regional Disintegration and Border Externalization -

Lee, Jeong-u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weakening of free-movement regimes in ECOWAS and the AMU, together with the EU's externalization of border control, has structurally reshaped youth migration in West Africa. Coups in the Sahel and institutional asymmetries within regional bodies have stalled governance, while Europe has tightened border closures and expulsions. As a result, young migrants seek new routes or remain and settle in transit zones, reorganizing their life strategies. Community organizing, digital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l survival practices have expanded, turning transit cities into strategic spaces of residence.

The study highlights how youth exercise agency despite precarious legal status, revealing the dynamic reconfiguration of life strategies beyond destination-focused analyses.

**|Key words|** youth migration, ECOWAS, AMU, externalization of borders, transit cities, Survival strategy

투고일 2025. 10. 07 / 심사일 2025. 11. 17 / 게재확정일 2025. 11. 17

